

Ingo Baumgarten:

## Passages

**Passages** 를 한글로 번역하면 과정, 길, 또는 과도기로 정의할 수 있다. '과정'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나에게 이 단어는 흥미롭게 다가온다. 그 이유는 과정은 공간, 시간, 상황 등을 연결 또는 절제해주는 중간 역할을 의미하며 변화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과정”이라고 하면 “중간” 또는 “그사이”를 뜻하며, 때로는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애매모호하고 양면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과도기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시간적 공간적 통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와 미래를 회상할 수 있도록 끌어준다.

### Passages in City

도심속에는 빌딩과 빌딩 사이에 수많은 통로 또는 길들이 있으며, 강을 두고 길을 결해주는 다리 또한 통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통로는 늘 어느 공간에서든 출발과 목적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면적인 움직임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 움직임은 단순히 공간과 공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 외에 변화되는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 (변화 또는 변신) 시간을 변화시키는 개념은 상태와 상황을 변화시키는데까지 연결된다. 도시는 지속적으로 변화된다. 건물과 길은 낡고, 부패되며, 낡은 건물들은 보수되거나 새로운 건물들로 지어진다. 때로는 매우 상반되는 것들이 비슷한 면모를 갖고 있거나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옛날의 것들이 19 세기에 지어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Passages /arcades of Paris**' 는 온통 유리와 철로 감싸진 건물들로 이루어진 지하상가 통로이다. 외부의 길로 이어주는 지하도 역할을 하는 셈이다. 유명한 철학자 발터 벤자민의 시대에 지어진 많은 지하 통로들은 낡거나, 상막한 상점들로 채워진 그저 평범한 통로였다. 벤자민은 그 통로 길을 지나치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변화의 욕구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파리의 **Passages-Arcades** 는 이러한 벤자민의 욕구를 채워준 프로젝트였다. 서울도 역시 아직까지 옛날 모습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지하도, 시장, 골목들이 나의 관심도를 불러 일으킨다.

### Passages in Life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존재하는 '과정'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류학적으로 한 인간이 사회적인 위치가 다양하게 바뀔 때 이를 설명할 수 있다. 프랑스어로 “**en passage**” 와 영어로 “**passing by**” 는 일시적인 경험을 뜻할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출생의 시기부터 불확실한 죽음의 시기까지의 단순한 과정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또는 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인간의 삶의 과정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경로로 볼 수도 있다.

### Passages in Art

예술창작의 과정은 통과 의례의 과정과 비슷한 점들이 있다. 단순한 재료가 예술가의 손에 쥐어지면 각기 다른 예술 작품으로 변화되고, 본래의 재료의 가치와 매우 다른 가치로 승계된다.

예술 작품은 재료를 통해 재료자체에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며 그 이상의 작가의 시간과문화와도 같은 의미를 소개하기도 한다.내 작품의 모티브를 평소의 일상에서 지나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상 생활에서 지나치다가 특정한 것들이 내 시선을 사로잡을 때가 종종 있다. 대부분나의 작업의 주된 주제는 건물들과 그 주변의 환경들이다.수년간의 시간이 지나도 잘 보존되거나, 변화되거나, 바뀌거나, 또는 사라지거나 하는 평범한 건물들이다. 그환경들을 관찰하면서 내가 느끼게 된 점은 그 건축물들은 간접적으로 그 건물을 설계하거나, 사용하거나, 짓는사람들의 의도와 욕구 또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 회화 작업은 그 과정을 통해 평면적인 표면이 추상적인 구도로 변화되었다가 관객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건물과 환경의 모습들로 완성된다. 내 관찰력의 변형은 회화작업으로 옮겨지는 것이며, 나의 작업은 극사실적이거나 완벽하지는 않다. 나의 페인팅들은 불확실한 주제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구도나 비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상적인 요소들은 매우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때로는 구도적인 측면에 따라 전달되는 묘사력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위치한 다리는 사람들을 다른 건물로 이동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과 비슷하게 예술 작품 또한 관람객과 작가를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Text for the exhibition „passages“ in Gallery Chosun, Seoul, 2018/02/07 -02-27 translation by gallery Chosun*